

10/28/18

설교 제목: 우리 서로 사랑하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일서 4 장 1-21 절

- (요일 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 (요일 4: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 (요일 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절관주** 요 2:22
- (요일 4: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 (요일 4: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 (요일 4: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 (요일 4: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 (요일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 (요일 4: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 (요일 4: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 (요일 4: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 (요일 4: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 (요일 4: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 (요일 4: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 (요일 4: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 (요일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 (요일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 (요일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 (요일 4: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본문을 1-6 절, 7-21 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 부분에서는 '영을 분별하라'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왜 첫 부분에서 '영을 분별하라'고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지, 어찌보면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은 두 권면을 연이어서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누구랑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를 가려내야 누가 형제인지를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앞 장인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영 분별의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요일 3: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일 3: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요일 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일 4: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일 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침투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 영은 선하고 좋은 것,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지만 참 인간으로 이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송두리채 흔드는 것이고 기독교 교리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이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영을 분별하여 이단을 가려내고 참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내라고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참 신이시고 동시에 100%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 거짓 교사이고 거짓 선지자이며 이단입니다.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미혹의 영에 사로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세상은 말세인지라 적그리스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분별해 형제를 구별해 내고 서로 사랑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쓰러지면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요일 4: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일 4: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요일 4: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들 안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런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듣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힘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호소합니다.

(요일 4:7 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무 조건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것과 같은 거룩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와같이 서로 거룩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1.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일 4:7 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일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2. 우리는 사랑의 빛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 4: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빛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땅에 보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땅에 오셔서 벌거벗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며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큰 사랑의 빛을 진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일 4: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일 4: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 4: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일 4: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요일 4: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일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야 심판 날 환란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온전히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심판 날이 오면 우리에게는 큰 환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 21: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단언합니다.

(요일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일 4: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만한 행동을 해서, 아니면 사랑할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라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 우리를 그냥 아무 조건없이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겸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 빛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여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노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탕감해 주신 일만 달란트까지 다시 돌려 받길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것 같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감싸주며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짧은 인생입니다.